

2013년 5-6월호
(통권 225호)

해나리

꿈과 사랑을 가꾸는 목5동 성가정 성당



해는 태양(陽)·나리는 내(川)의 옛말로, 해나리는 하느님의 빛이 햇빛처럼 내리는 우리 고을 양천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열리는 창

우리는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실망하고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마음을 상하곤 한다.

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하루가 어둡고 하루가 밝아진다.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수없이 되풀이 하면서도
나를 비우고 선뜻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는 덕을 쌓기란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사람의 관계는 진정 겸손과 인내의 노력 없이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며,
시들기 쉬운 꽃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고
그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이해의 선물이고,
이해의 선물이 곧 사랑일 것이다.

옹졸함을 툭툭 털고 밝게 웃어보고,
웬만한 것은 넓은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멀리 내다보고 조금 더 양보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용서로 바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해의 선물로
나도 이제 좀 더 깊고 넓은 사랑을 키워가야겠다.

(글 : 이해인)



한눈에 보기

| | | |
|-------------|----|---------------------------------|
| 여는 페이지 | 02 | 기쁨이 열리는 창 |
| 해나리 열어보기 | 03 | |
| 연재합니다 | 04 | 날마다 생각한 하느님(36) ·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
| 성모의 밤 | 07 | 노틀담 수녀원 진달래 축제를 다녀와서 · 신연순 |
| | 08 | 성모님께 드리는 글 · 고혜란 |
| | 09 |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 박성민 |
|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 11 | 박광원 세례자 요한 주임신부님 영명축일을 축하드립니다 |
| 성모의 밤 | 12 | |
| 진달래 축제 | 14 | 노틀담 수녀원 진달래 축제 |
| 청년 신앙학교 | 15 | 양천지구 청년 신앙학교 |
| 일치의 날 성지순례 | 16 | 본당 일치의 날 절두산 성지 도보순례 |
| 구역장 족구대회 | 18 | 18양천지구 구역장 족구대회 |
| 클마당 | 19 | 양천지구 구역장 족구대회, 드디어 1승 동메달 · 송기택 |
| | 20 |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 노홍석 |
| | 22 | 절두산을 다녀와서 · 강라현 |
| | 23 | 일치의 날 · 진태준 |
| | 24 | 신앙의 씨앗을 키우는 시간을 보내며 · 소지연 |
| | 25 | 성당에 와서 드는 평온함 · 김은영 |
| | 27 | 예비 신자로서 다녀온 순교사적지 순례 · 임나정 |
| | 28 |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매력 · 신희주 |
| | 30 | 목5동성당 초등부를 소개합니다 · 이현목 |
| | 31 | 성직자 부모 성지순례 및 피정 · 최동준 |
| | 32 | 부름에 선택된 아들 · 이시권 |
| 부모 교육 | 34 | |
| 클마당 | 36 | 양천의 잔치, 양천 마라톤을 마치고 · 안병정 |
| 소공동체 모임 | 37 | 소공동체 모임 · 노국희 |
| 은빛대학 제주도 여행 | 38 | 은빛대학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 장순선 |
| | 40 | 해나리 은빛대학 제주도 여행 |
| 노인대학 노래자랑 | 41 | 18지구 지구장배 노인대학 노래자랑 |
| 레지오 성지순례 | 42 | 레지오 마리아 전 단원 열차 성지순례 |
| 성당 소식 | 44 | 사진으로 보는 본당의 소식 |
| 문화교실 | 46 | 꽃꽂이 반, 수채화 반 |
| 클마당 | 48 | 기차 타고 나바위 성지순례 · 지영옥 |
| | 49 | 나바위 성지순례를 마치고 · 이원혜 |
| 전입교우 명단 | 51 | 전입교우 명단 · 우리본당 살림살이 |
| 광고 | 52 | |
| | 54 | 이제 해나리를 물러납니다 · 백명애 |
| 문화교실 | 55 | 사진반 |

발행인 박광원 세례자요한 주임신부님
 편집 백명애(마르가리타), 이성자(마리아나), 안신혜(가브리엘라), 이현정(소화데레사)
 사진 황경희(엘리사벳), 이승환(대건안드레아), 김숙경(베로니카)
 발행일 2013년 5-6월 <225호>
 전화 2644-1100 FAX 2644-9100
 E-mail haenari0330@hanmail.net 홈페이지 www.mok5.com(한글주소/목5동성당.com)
 표지사진 견진성사

날마다 생각한 하느님(36)

- 말씀하시는 하느님 -

조규만(바실리오) 주교님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히브 4,12)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병철 회장의 8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경까지 쓰인 글의 모

음입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한 하느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느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쓴 책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과장되고 황당한 이야기를 추려내어 정경 화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은 90년 경 암니아 회의에서 성경의 목록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은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았지만 이미 교부시대에 그 목록이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프로테스탄트가 성경 목록에 이의를 제기하자 트리엔토 공의회에서 사도로부터 시작되어 교부들이 사용하였던 전승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성 예로니모가 번역한 라틴어 불가타 역본(400년경)의 목록을 교회

공식 성경 목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구약 46권, 신약 27권을 성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프로테스탄트는 구약의 유태서, 지서, 도비아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서 상하권 7권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다른 책들을 ‘외경’이라고 일컫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은 외경들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선종완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를 강의하시면서 특히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을 가르치시면서 우셨던 기억은 아직도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선 신부님은 프로테스탄트와 함께 하는 성경 공동 번역 작업에 참여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신부님의 역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말을 다듬는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공동번역이 다 끝났을 때, 신부님은 “이제 하느님이 우리말을 하실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우리말 성경은 결국 하느님

이 우리말을 하시는 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느님의 성령의 감도로 쓰인 책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합니까?

오래 전에 동양화를 그리는 신부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해가 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붓대를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런데 동양화가의 먹으로는 도저히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붓대를 꺾어 먹을 찍어 그렸더니 자신이 보아도 그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가들은 자신들이 그린 그림이지만 정말 멋진 그림은 ‘신이 내린 그림’이라고 말한답니다.

우리들에게도 제정신이 아니게 일을 완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성령의 도움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감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도 이해합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 1-14)

‘말씀’은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 개념을 빌린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서 ‘로고스’는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말’ ‘이야기’ ‘연설’ ‘설명’ 등을 의미합니다. 철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보편타당성을 지닌 진술’이라는 의미의 Mithos(미토스, 곧 神話)와는 대조적으로 ‘로고스’는 ‘논리적 인식을 통하여, 또는 합리적 증명을 통하여

진실성을 드러내는 진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학의 교량 역할을 하였던 영지주의자들의 개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로고스는 신적 세계의 충만을 이루는 여러 신적 존재의 하나로서 이데아 세계가 그 그림자인 세상 사물에 앞서 선재(先在)하였던 것처럼 선재적 존재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성경의 ‘로고스’가 전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의 개념을 온전히 수용한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약성경에 이미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지혜’(잠언 8, 22-31 참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를 구약의 ‘지혜’ 개념의 그리스적 토착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든 ‘지혜’든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말을 하기 전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깃들게 된 것은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다 옮기지 못하고, 하느님의 지혜에 도달하는 일이 매우 먼 일이라는 하지만, 인간은 지혜나 말을 통하여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믿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갈릴래아 어부 출신을 비롯한 12제자들과 몇몇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완고한 마음을 지녔더랬습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고 설득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제자들의 삶과 증언에서 그분이 참으로 하느

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목숨을 바친 그들의 증언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좋게 말하면 순진하였고, 나쁘게 말하면 배운 것 없이 고기나 잡던 무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순박한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고 증언한 것이어서 더 믿음이 갑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믿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사제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말대꾸를 하였다고 하여 하인들에게 손찌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시오, 그리고 내가 옳바로 말을 했다면 왜 나를 때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지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옳바로 말을 했다면 그를 거스르지 마시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믿지 못하겠

거든 내가 한 말이 옳바른 말이라면 그 말대로나 사십시오.” 같은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옳바르다면 그 말씀대로나 사십시오.”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형제에게 성을 내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빼앗거나 훔치지 말고,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지 말 것이며, 같이 가자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고, 자선을 베풀되 뽐내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되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원수마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뒷담화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때 여러분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하느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걸음의 등불입니다.

노틀담 수녀원 진달래 축제를 다녀와서

성모성심 꾸리아 신연순 마리아



5월은 웬지 싱그런 바람이 전해주는 가슴 설렘과 많은 기념일이 담긴 바쁜 일상으로 가족과 이웃이 더 생각나는 계절이다. 목5동 성당에서 레지오 활동을 한지 어느새 7년, 해마다 5월 5일이면 노틀담 수녀회에서 진달래 축제를 여는데, 꾸리아 간부를 맡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노틀담 진달래 축제의 유래는 수녀회의 한국관구 지부 축일이 1985년 5월 5일 어린이 날로 정해졌고, 이듬해 노틀담 장애 직업 교육원(현 노틀담 복지관)을 설립하면서 기금 마련을 위해 첫 진달래 축제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성모성월이며 어린이날이고 휴일이기에 수녀님들의 부모님과 가족, 어린이들이 함께 수녀원을 찾아 뜻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면서, 당시 계양산과 수녀원 정원에 피어있는 진달래의 이름을 붙여 이날 열리는 바자회의 명칭을 ‘진달래 제’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바자회 이익금은 초창기는 복지관 후원금으로, 현재는 수녀님들의 양성기금으로 쓰이며 중국, 베트남, 필리핀, 파푸아뉴기니에서의 선교 후원금과 양성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목5동성당의 레지오 봉사자 20여 명이 오전 오후 팀으로 나누어, 바자회에 필요한 물품을 차량 가득 싣고 이른 아침 수녀회에 도착했다. 꽤 이른 시간이지만 많은 봉사자들이 오시어 각자

판매할 물품과 재료를 준비하느라 수녀원은 시끌벅적 했다.

목5동성당은 차 판매를 담당하여 뜨거운 커피, 냉커피, 복숭아차를 판매할 준비를 했다. 종일 박수치고 목을 돋우어 손님을 맞은 결과 미리 준비한 커피와 차는 거의 다 판매하였고, 끝나갈 무렵 남은 커피를 모은 주전자를 들고 원장수녀님과 꾸리아 단장님이 수녀원을 한 바퀴 돌아 반액으로 할인하신 결과 빈 주전자가 되었다.

축제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하늘도 맑고 바람도 시원한 소나무 그늘진 마당에서의 야외 미사였다. 돛자리를 깔고 어린이, 어른, 모두가 자유롭게 앉아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대 자연 안에서의 미사는 또 다른 감사와 찬미가 절로 우리나라에게 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성모님의 고향 나자렛을 이야기하시며 신부님과 모든 신자들이 함께 부른 고향의 봄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미사로 기억된다.

축제 내내 실 틈도 없이 판매한 금액을 정산해보니 수입이 꽤 좋다. 처음 참석한 바자회 봉사지만, 개개인의 작은 봉사가 모여 이렇게 큰 산이 되는구나 생각하니 수녀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과, 노틀담 수녀회의 사도직 활동에 임하시는 국내외 수도자 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하느님께 청하면서, 이렇듯 귀한 체험과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

성모님께 드리는 글



인자하신 어머니 올해도 어김없이 성모 성월 5월을 맞이합니다. 성당 앞마당에 있는 성모상 앞에는 1년 12달 자신의 소원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또한 성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봉헌한 아름다운 꽃들이 예쁜 모습으로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성모님 성모님의 행동 말씀하나 하나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으며, 일생을 주님의 도구로서 삼으셨던 원죄없으신 어머니입니다.

티없이 고운 성모님. 저는 30년 전에 터어키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사도 요한의 등에 업혀 피신하였던 성모님이 사신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성모님 집 담벼락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워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성모님 집에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여왕중의 여왕이신 성모님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허리띠와 같은 묵주를 돌리며 기도하면서 성모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모님, 인자하신 성모님이 십자가상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듯이 저도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핍박으로 얼룩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성모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머리는 총명했으나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반항적이며, 저주의 눈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오로지 성모님만 생각하면서 성모님께만 매달려 어머니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는 성모님의 음성은 저의 마음을 달래주며,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모님 그런데 그렇게도 아들의 성격이 빨리 변화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밝은 방향으로 사고가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모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성모님 지금은 내 아들이 이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훌륭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는 제게 얼마나 소중한 기쁨인지요.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저의 작은 체험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모님! 가만히 불러 보기만 해도 제 마음이 편해 집니다. 저에겐 오직 성모님만이 저의 위로자였고, 힘이셨으니까요.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며, 찬미합니다.

성모님의 순명과 겸손을 본받아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어머니처럼 살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을, 성모님을 사랑하며
2013년 5월 성모님의 밤
은빛대학 7반 고혜란 베로니카 드림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성모님! 안녕하세요?
5월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달입니다.
세상은 온통 초록이고, 예쁜 꽃도 많이 피거든요.
특히 이 시기에 성모님의 밤을 정한 것만 보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성모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아시죠?
지금까지 저는 성모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모르면서도 알고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성당을 오고 갈 때 습관처럼 인사를 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이 글을 쓰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만이 아닌 하느님의 자녀인 마리아 성모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엄청난 어려움을 생각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성모님 같은 분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2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존경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럴만한 이유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삶에서 성모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침대로 사셨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성모님이 되신 것이 거저 얻어진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단지, 훌륭한 예수님의 어머니여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난 부분을 필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고통스러운 예수님만 보였지만, 지은 죄도 없이 사람들로 부터 배척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메고, 힘겹게 걸어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지켜보시는 성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성모님을 꿈에서도 만난 적이 없지만, 지금도 지구 곳곳에 발현하셔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저처럼 기도 안하는 사람들이 걱정돼서 그러시죠?
저희 엄마도 멀리 가시면 전화로 별일은 없는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거든요.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예수님께 전해 주시는 성모님! 감사드립니다.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중요하거나 급할 때만 부탁드리고 감사기도를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아시죠? 성모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아요.

2013년 5월 11일
박성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드림

세례자 요한

성 요한 세례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사제인 즈카리아와 성모 마리아의 친척인 성녀 엘리사벳의 아들로써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아인 카림에서 태어났다. 그 역시 가브리엘 천사의 탄생 예고를 통하여 그동안 수태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었다(루가 1,5-25). 그는 서기 27년경까지 유대 사막에서 은수자로 살았고, 30세가 되었을 때부터 요르단 강가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설교하기 시작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실 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는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며 말했다(마태 3,14). 그리스도께서 갈릴래아로 떠나신 뒤에도 그는 요르단 계곡에서 자신의 설교를 계속하였다.



Birth of St John the Baptist- GHIRLANDAIO, Domenico.]
1486-90 Gtrdvo Santa Maria Novella, Florence.

예수께서는 당신보다 앞서 온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요한을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 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다.”

요한은 고행자로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에게 생활의 근본적인 회개를 촉구했다. 그의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곧 오신다고 말했으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예수께 대한 요한의 태도는 “그분은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요한3, 30)는 것이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은 6월 24일이고, 수난 기념일은 8월 29일이다.

(정리 : 가톨릭 굿뉴스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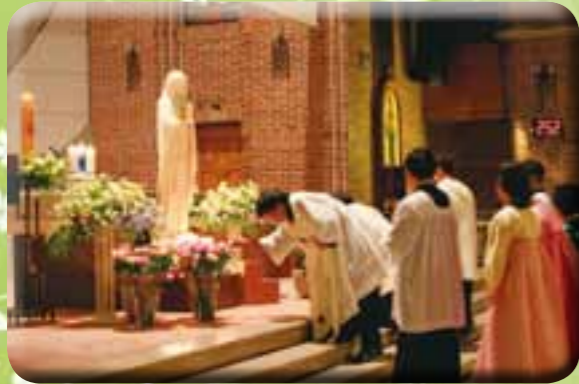
박광원 세례자 요한 주임신부님
영명축일을 축하드립니다

6월 23일 교중미사 후 축하식



성모의 밤

5월 11일 토요일 저녁 8시
성당 마당 성모님 상 앞과 대성전



노틀담 수녀원 진달래 축제

5월 5일 일요일 노틀담 수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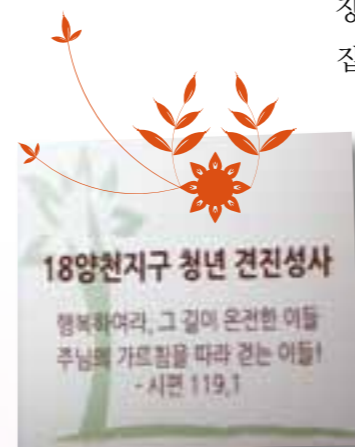


양천지구 청년 신앙학교

일시 : 6월 2일 성체성혈 대축일 오후 2시

장소 : 목5동성당 대성전에서 본당 청년 22명

집전 :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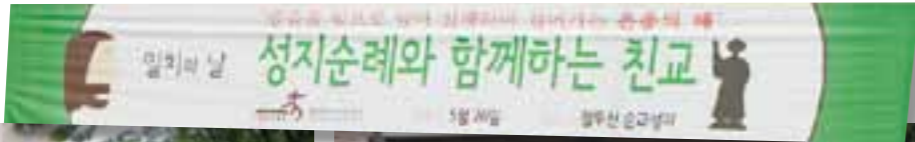


본당 일치의 날 절두산 성지 도보순례

일시 : 5월 26일 9시 본당 출발

장소 : 절두산 순교성지

행사장 순례미사 : 김대건 신부님 상 앞 11시



18양천지구 구역장 족구대회



일시 : 5월 11일 토요일

장소 : 신월동 소재 양강 초등학교



양천지구 구역장 족구대회, 드디어 1승 동메달

1-5 구역장 송기택 안토니오

5월 11일 신월동 양강중학교에서 서울대교구 양천지구 소속 9개 본당 구역장 족구대회가 열렸다. 본 대회는 양천지구의 구역봉사자 간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된 행사다.

앞선 세 번의 대회동안 한 차례도 메달권에 들지 못한 우리본당은, 타 본당이 같은 조로 편성하고 싶어 할 정도로 'S대 야구팀'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최약체 팀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각오는 대단했다. 주임신부님께서는 대회 전 주일, 승리 기원의 간절한 마음을 본당 교우들과 함께 미사드림으로써 선수들을 고취시키셨고, 대회 일정과 경기규칙이 확정된 후부터 '올해는 1승하자!' 라는 목표로 필승전략을 수립했다. 경기규칙이 바뀌어 사제나 총구역장이 필히 선수에 포함되어야 함에 따라 고가람 스테파노 2보좌 신부님을 선수로 확보하고, 모든 구역장님들이 매 주일 오후면 성당 인근 공터에 모여 맹연습에 돌입했다.

연습이 거듭될수록 상승되는 팀웍과 전력을 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대회 1주전까지 주전 선수를 정하지 않고 동기부여를 통한 전력상승에 주력하였다. 연습 때마다 여성 구역장님들이 체력보강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먹거리를 지원해 주셨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응원연습까지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팀의 전력을 최고조로 상승시켰다.

드디어 대회 당일! 우리본당이 속한 B조 예선전이다.

첫 번째 경기로 목동성당과 목3동성당, 목3동성

당 승리! 다음은 우리본당과 목동성당, 경기가 시작되니 선수들이 적잖이 긴장하면서 약간의 실수도 있었지만 결과는 우리 승리! 드디어 목3동성당의 새로운 족구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1승을 하니 안정감이 생겼고, 목3동성당과의 두 번째 예선전이 기다려졌다. 더욱이 주교님께서 선수로 참가하신다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 우리본당은 주교님과 2보좌신부님 두 분을 선수로 포함해서 목3동성당과 경기를 시작했으나, 초반에는 전력의 열세를 보여 0:7 스코어가 되었다. 경기흐름을 바꾸기 위해 작전시간을 얻고 파이팅을 외치며, 경기를 재개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13:13 동점 스코어, 상대선수들은 당황하며 실수까지 연발한다. 20:18 스코어,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놓고 우리의 공격 성공으로 역전승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생각지도 못했던 2승에 결승리그 진출! 결승에서는 전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계임을 모두 저 3등이 되었지만 잘했다 우리선수! 대회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 가장 커다란 수확이었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주임신부님과 선수로 참가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신 주교님과 2보좌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사 당일 경기장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 드리며, 연습기간 내내 넉넉한 먹거리와 정성을 보여주신 여성구역장님들께 이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아멘. 🙏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구역분과장 노홍석 베드로



다. 순간 머리속이 하얘졌다.

1. 주님을 향해 모두가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20]

올해 일치의 날 행사는, 매년 양정고등학교에서 전 신자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때로는 연예인들을 초빙해서 함께 하던 형식에서 전 신자들이 절두산 성지까지 도보로 순례를 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세속주의로 인한 종교적 무관심과 무신론 등의 영향으로 신앙의 위기를 체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앙 쇄신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선포된 ‘신앙의 해’ 기간이기에 이 순례는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신자가, 그것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의 문턱에서 절두산 성지까지 도보로 순례한다는 계획 자체에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행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더욱

이 신자들에게 정성이 듬뿍 담긴 도시락 만들기가 지의 미션이 더해지면서 준비 과정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당연히 잘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도 들었다.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힘도 부치고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곤 하지만, 매년 위기 때마다 슬기로운 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행사가 마무리되곤 하였기에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당연히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생활과 신앙생활 속에서의 단체 활동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회생활은 리더를 중심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목적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도 불사하지만 신앙생활 속의 단체 활동은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움직인다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일의 진행 속도는 더디지만 오히려 한걸음 한걸음에서 신자들의 아이디어와 지혜가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이런 반찬 어때요?”

많은 여성 봉사자님들이 모여 여름철에 쉽게 상하지 않으면서 정갈한 맛을 줄 수 있는 이런 저런 아이디어들이 오갔고, 또 실제로 조리를 해보면서 내용이 바뀌기도 하였다. 필자도 이 과정에서 서너 종류의 소시지 요리를 먹기도 했다. 결국은 필자가 먹었던 소시지 반찬은 제외되었지만……^^

정확한 식수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당일 비표를 부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정확한 인원 파악과 더불어 일반인

들에게도 허용된 한강공원에서 신자와 비신자를 식별하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어떤 비표를 선택할 것인지 토론하다가 활짝 웃고 있는 스마일 배지를 선택하였다. 덕분에 한강공원은 활짝 웃고 있는 스마일로 가득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다.

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도보의 속도가 천차만별이기에 구역별 신자가 섞일 우려가 있었다. 구역장들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의견이 오갔고 깃대를 만들자는 어느 구역장님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여기에 깃발을 코팅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덕분에 순례 내내 멋진 깃발을 중심으로 구역신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눈멀어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찬미 예수님!

2. 오병이어의 기적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태오 14,19]

“도시락 1500개, 선물 1300개, 생수 2000개”

출발 아침에 성당 마당에 잔뜩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배급 물량에 덜컥 겁이 났다.

“이걸 다 어찌할 것인가…”

하지만 이것도 새벽부터 줄린 눈으로 행사를 선

뜻 지원 나온 우리 성당의 미래인 청년부와 구역에서 지원 나오신 구역 선발대 봉사자님들의 지원으로 해결되었다. 언제 우리가 이런 노동을 해보았겠는가!^^

행사 전 파악된 신자들의 참여 인원은 대략 1300여명 정도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행사 전에 파악된 인원수보다 실제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기에 이 숫자는 당일 정확한 참여 인원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또 이날 더위라는 치명적인 복병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임신부님께서 도시락을 넉넉히 준비할 것을 주문하셨고 결국 1500개의 도시락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도시락을 준비했다가 남게 되면, 우왈꼬……”

그러나 행사장에서 파악된 인원만 1400명이 넘어섰고, 신자를 따라서 함께한 분들도 상당수여서 1500개의 도시락이 순식간에 동이나버렸다. 마지막에는 도시락이 모자라는 기분 좋은 참사(?)까지 벌어졌지만, 이것도 십시일반으로 도시락을 나누다 보니, 행사가 끝나고 50개 정도가 남아 있었다.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한여름 밤의 꿈과 같이 일치의 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하신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특히 이분께, “주님! 목5동을 축복해 주시어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사로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절두산을 다녀와서

초등부 3학년 강라현



우리 목5동성당은 5월 26일 일치의 날 행사로 절두산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라는 단어가 어려워 찾아보니 '성지순례란 순례자가 종교적 의무를 지켜나 자신의 가호와 은총을 구하기 위하여, 성지 또는 본산 소재지를 차례로 찾아가 참배하는 일'이라 써어 있었습니다. 저는 희제라는 친구와 같이 갔습니다. 처음 순례를 해서 그런지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친구와 함께 가서 신이 났습니다. 맛있는 점心和 선물을 준다는 말에 기분이 들뻔고 발걸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성당에서 주교님께서 십자가를 그으신 후 구역에 따라 출발하였습니다. 구역이 표시된 깃발은 바람에 더 힘차게 휘날리고 많은 사람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날씨가 더운데도 사람들은 밝은 모습이며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친 모양이셨지만 뭐가 좋으신지 행복하게 걸으셨습니다. 저는 힘이 넘쳐서 먼저 뛰어 갔고 친구는 힘들어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안양천에서 주임 신부님이 웃으며 인사를 하셔서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는 길에 선유도 공원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모두 다 힘이든지 얼굴이 빨갛고 땀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해 미사를 드리려 하는데 성당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도 부족하였습니다. 나누어 주신 우산을 쓰고 미사를 드리니 자유로운 느낌이었고, 성가대 목소리도 한강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땅위에 개미들도 우리를 반기는지 더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미사는 조금 지겨웠지만 신부님들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친구와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미사를 끝내고 한강공원에서 밥을 먹고 절두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동상과 신부님이 가지고 계시던 물품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도 보고 커다란 십자가를 보니 예전 순교자들이 돌아가셔서 많이 슬펐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이번 성지순례가 참으로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순교자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친구와 미사도 드리고 구경도 해서 기뻐합니다. 앞으로는 순교자님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지순례가 매년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



일치의 날

중학교 1-2반 교사 진태준



5월 26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치의 날!!

지금 고백하지만 사실 난 학생 때 한 번도 일치의 날 행사에 참여해 본적이 없고 신입교사가 된 지금 처음 가는 거라 아마 다른 선생님들

보다 더 들떠있던 것 같다. 우선 나는 걷는 것을 정말 좋아 하는데, 성당에서 절두산까지 걸어갔다 온다는 사실이 매력이 있었고, 걸어가면서 아이들과 이제까지 많이 나누지 못한 얘기를 한다는 생각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나를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다.

드디어 성당에서 주교님의 말씀을 듣고 학생의 인원 조사를 마치고 절두산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 부풀었던 나의 생각과는 달리 걸어가는 도중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한 건 바로 무.더.위!

빨리 찾아온 여름이라 어느 정도 더울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더울 줄은 몰랐다. 걸어가면서 아이들은 계속 물을 달라 하고, 우산을 달라 하는데……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아이들마저 나를 힘들게 하니 견뎌내기가 괴로웠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절두산에 도착했다.

처음엔 미사를 드리려고 잔디밭에 앉았는데, 햇볕이 뜨겁고 벌레들이 많다고 하여 나무가 많은 그늘진 곳으로 이동했다. 확실히 잔디밭보다는 편안하고 좋았는데, 제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미사소리가 잘 안 들렸다.

나는 학생들 점심을 받기 위해서 미사 도중에 먼저 나와 자리도 마련하고 도시락도 받아 준비해두

었다. 미사가 끝나고 점심시간 이다! 힘들게 절두산까지 온 우리들은 마치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맛있게 도시락을 먹었다.

점심을 다 먹고 다시 걸어서 성당으로 가야 할 시간~ 이때는 점심도 먹었겠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성당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걸어오면서 중1 아이들과 고민도 얘기하고 들어주기도 하면서 걷다보니 벌써 목동에 도착하였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즐겁게 얘기하며 걷다 보니, 절두산으로 갈 때보다 돌아오는 길이 더 짧게 느껴졌다. 오후 3시가 돼서야 아이들과 헤어지고 나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들기 시작해 꿀잠을 잤다.

이렇게 우리들은 2013 일치의 날을 무사히 마쳤는데, 돌이켜 보면 힘들게 걸었던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 몸은 피곤했지만 아이들과 이제까지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서는 힐링이 됐고, 절두산 마당에서 미사를 드렸다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고 추억이 되었다. 📷



신앙의 씨앗을 키우는 시간을 보내며

주일 오전반 소지연 유스티나



부모님께서 가톨릭 신자이셔서 6살에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8월 15일에 첫 영성체를 받기 위해 2월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예비자 교리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어머니

의 권유로 주일 미사에 참석하였을 때,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을 받아 그 후 꾸준히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미사 예절과 성경을 더 알고 싶었는데 마침 예비자 교리 반을 모집하여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교리 공부를 하고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처음에는 버겁기도 했지만 점차 교리 시간과 미사에서 들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아 한 주를 살아나가는 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닿은 말씀 중에 '믿음, 사랑, 용서 등의 씨앗은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마음이 열리고 한 층 성장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예비자 교리 시간이 그 발판이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믿는 종교적 행사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마음 한 곳에 자리 잡은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능한 성당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1처부터 14처를 돌

며 기도하는 십자가의 길, 부활초 점화, 성모님의 밤 등에 참석하였고, 거룩한 예식을 경험하였습니다.

두 달 정도 교리 공부를 하였을 무렵에 저는 성당에서 주최하는 예비신자를 위한 성지순례에 가족과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명동성당과 서소문, 당고개, 새남터, 절두산 순교성지를 돌아보았고, 저의 첫 성지순례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제가 한 두 번은 다녔을 곳 주변에 성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어서 경이로웠고, 성지를 순례하면서 신앙과 저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성지 코스였던 절두산 박물관의 전시 테마인 '온고지신(信)' 뜻과 같이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신앙의 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당인 명동대성당을 매년 TV를 통해서 보다가 직접 그 곳에 가서 봉사자들의 설명을 듣고 그 역사와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미사를 참례할 수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명동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난 후에 서소문 공원 안에 위치한 서소문 순교성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서소문 밖 순교자 현양탑'은 저와 저희 가족이 믿는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기 위해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줬고, 그 희생을 저희가 기리며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당고개와 새남터 순교성지는 한국적인 아름다

움을 지닌 곳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우리 민족의 가톨릭 신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교지여서 참혹한 역사 현장이지만 믿음의 장소로 아름답게 그 뜻을 기릴 수 있게 조성되어서 후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이번 성지순례는 몸과 마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였고, 앞으로의 예비자 교리 기간의 밑거름이 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예비자들의 성지순례를 이끄는 봉사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봉사자님들의 노고가 마음으로 전해져 신앙의 공동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후에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말로 형언할 수 없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을 느끼고 저 자신이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놀람과 동시에 '이것이 신앙이 지닌 힘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의 말씀처럼 제 마음 속 신앙의 씨앗이 자라기 위해 저 자신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주일 미사와 예비자 교리 반 참석을 지켜나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제야 씨앗을 뿌린 저의 신앙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습득하여 생활에서도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제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성당에 와서 드는 평온함

예비자 김은영



2월 17일 입교식, 나에게 성당은 호기심과 신비의 장소였다. 선뜻 들어서지도 못하면서 궁금한 것은 너무도 많은 곳이었다. 미사참여는 사실 나에게 처음은 아니다.

힘들게 보내던 시간, 타 지역 성당에서 혼자 맨 뒷자리에 앉아 참여했던 적이 있다. 교리나 미사형식에 대해서는 모르고 스스로 성당을 찾아간 것인데, 그때 나는 천주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느껴졌다. 2009년 세상을 떠나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늘 신기해하던 기도 방법에 대한 의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첫 미사시간, 예비 신자들이 촛불 봉헌을 하고 맨 앞줄에 앉아서 미사를 드렸다. 주임 신부님과 목5동성당에 부임하신 스테파노 제2보좌 신부님을 뵈 수 있는 미사였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봉사자님들의 친절하고 설명과 안내로 성당 미사에 대한 그동안의 궁금증들이 조금은 풀리는 시간이었다. 모든 게 신기하고 감사히 시작된 첫 입교식 미사였다.

지하 소성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 너무도 추웠다. 오들오들 떨면서 빵모자 쓰신 멋진 중년의 봉사자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와, 성당의 예절에 관해서 들으면서도 다른 봉사자

님들이 앞에 제단을 지나다니면서 늘 인사를 하시는 부분이 귀찮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인사하는 모습이 매우 경건해 보이면서도 나도 믿음이 강해지면 저런 숙연한 모습의 인사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완전한 무신론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종교를 가지지도 않았었다. 주말마다 교회나 성당에 가는 친구를 신기하게 보던 사람이었다. 황금 같은 주말에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여타의 스케줄이 많은데 왜 저렇게 열심히 나가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지금도 사실 완전히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적게나마 그 열심히 마음이 이유가 있다는 것은 느끼게 되었다. 매주 성당에 들어서서 성모 마리아님께 인사를 할 때의 그 마음은 큰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다. ‘오늘도 이렇게 당신의 품에 왔습니다.’ 하는 편안함.

지금까지 성당 행사는 참여하지 못했다. 3월에 한 어머니의 허리 수술로 주말은 병원을 비울 수가 없었다. 회사와 병원을 오가는 상황이 길어지고, 주말은 늘 휴식 없이 병원에서 지내게 되니, 무한히 긍정적인 삶을 사는 나지만 많이 힘이 들었다.

어머니는 오랜 지병을 가지고 계신다. 몇 번의 큰 수술을 하셨지만, 그때마다 잘 극복하셨기에 이번

에도 잘 회복되실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술은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셨고, 좋지 못한 간병인으로 인하여 엄마를 힘들게 했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했고, 설상가상으로 수술로 인한 감염으로 입원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지면서 나는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 시기에도 목요일 교리 수업은 거의 빠지지 않았다. 성당에 와서 드는 평온함과 주임 신부님의 경험과 함께 듣는 성서 내용이 나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성모 마리아님은 엄마에 대한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하루하루를 견디던 나에게 교리수업은 위안이고 행복이며, 감사의 시간이었다.

아직도 미사가 익숙하지 않고 기도문을 모두 외우지는 못하지만 성당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감사하다. 지친 일상으로 피로해도 성당에 들어서고 교리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순간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사랑하는 김 미카엘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은 뭔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의 인연은 이유가 있듯이 나와 주님의 만남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인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천천히 주님께 걸어가 보고자 한다. ■

예비 신자로서 다녀온 순교사적지 순례

토요 C 반 입나정



4월 28일 일요일 오전, 예비 신자들이 함께 모여 서울 곳곳에 위치한 순교사적지를 돌아보았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일정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순교자들의 피땀 어린 순교 성지를 돌아보니 몸의 피곤함은 잊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성지 순례 첫 번째 장소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옛 이름 명례방이라는 지금의 명동에 위치한 명동대성당이였다. 명동대성당은 유명한 곳이기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으나, 이번엔 지하성당도 가보고 미사도 드릴 수 있어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미사를 마친 후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 성지로 이동했는데 ‘서소문 밖 순교자 현양탑’에 새겨진 순교자 분들의 많은 이름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하느님을 위해 자신의 귀한 생명까지 내어 놓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존경스러웠으며 수많은 무명의 순교자도 많았다는 말에 더없이 숭고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양탑이 나타내는 상징적인 뜻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 조선시대의 형틀인 ‘칼’을 형상화한 화강석 3개는 죽음과 박해를 상징하고, 형틀에서 흘러내리는 일곱 개의 금빛 선은 7성사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한다. 또한 물속에 놓인 많은 조각들은 무명의 순교자를 나타낸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처형을 당했는지 가늠이 갔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순교성인을 배출한 당고개 순교 성지 내 성당도 방문하였다. 성당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성당 지붕 위로 잔디 마당을 조성하여 아담하고 조용한 성당의 풍경이 인상적으로 남았다.

네 번째 방문한 곳은 새남터 순교 성지였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섞인 약간의 퓨전적인 느낌이었다. 이곳은 한국 건축물의 형식으로 지어진 성당으로, 강론대는 장구모양이고, 감실에는 무궁화 무늬가 보였으며, 성수대는 도자기 모양으로 한눈에도 전통적인 느낌을 살린 성당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간 절두산 순교 성지는, 순교자 박물관까지 갖춘 짜임새 있는 규모가 실로 놀라웠다. 국가사적지이기도 한 이곳에는 광장에 김대건 성인의 동상을 비롯하여 병인 순교자 남종삼의 흉상과 사적비, 순교자와 관계되는 조형물이 야외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었다. 역사 유적지이기도 한 이곳을 예비 신자로서 다녀 올 수 있어 알찬 시간을 보내고 온 듯 하여 뿌듯하였다.

선조들의 순교 정신을 느낄 수 있었던 이번 성지 순례는 내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길잡이가 되어주었으며, 순교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하느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매력

중고등부 분과위원장 신희주 야고보



주일 아침 9시 목5동성당 대성전에서는 힘찬 반주 소리와 해설자의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혼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빼꼼 내미는 학생, 친구들과 삼삼오오 깔깔거리며 성전을 들어서는 학생들, 졸린 눈을 비비며 등장하는 학생들, 예쁘게 꾸미고 수줍어하는 여학생들, 땀 흘리며 헐레벌떡 뛰어오는 남학생들…… 이렇게 미사를 드리러오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보를 주며 맞이한 지도 2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어색했지요. 중고등부 미사에만 있는 율동찬양인 ‘액션송’도 낯설었고, 신나는 성가들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쑥스러웠지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뿐이지만 눈에 익은 학생들도 많아 어느 친구가 열심히, 어쩌다 한 번 오는지 구분도 됩니다. 누가 성가대 친구인지, 복사단 친구인지도 알아볼 수 있지요. 가끔 학생미사가 없어서 교중미사 시간에 오면 신나는 성가가 없어 오히려 허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매력에 학생들 뿐 아니라 저 또한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아직 그 매력을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이 글을 보내고자 합니다.

5월 26일 일치의 날, 50여명의 중고등부 학생들

이 가족들과는 따로 참여하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함께 가자고 하셨다면 집에서 꿈쩍도 안했을 녀석들이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함께 가자고 하니 다들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얼음물을 들고 모였습니다. 학생 중 대부분은 부모님의 권유로 성당을 나오기 시작했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성당을 포함한 어느 곳이든 부모님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간혹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학생을 부모님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곤 합니다. 그 학생은 평소 성당에서 친구들과 조잘거리며 잘 웃고 떠들어서 선생님들을 가끔 곤란하게 하지만 부모님 옆에서는 너무나도 얌전합니다. 같은 학생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아마도 학교, 학원, 집에서 못 다한 이야기거리가 성당에 오면 모두 생각이 나나봅니다.

학창시절 주일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대학생이 되어 교사활동을 하는 어떤 선생님은 “성당친구는 정말 평생친구입니다.” 라고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학교를 배정받거나 선택하여 가느라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년부터 대학까지 계속 같은 동아리로 사귀는 친구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주일학교 친구들은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합니다.

학교가 달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 함께 미사를 드리고 교리를 듣습니다. 2박 3일 동안 캠프를 통해 여행을 다녀옵니다. 성인이 되어 더 이상 같은 시간에 같은 성당에 가지 않아도 주일학교에서의

추억과 친구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학교에서 만났던 친구가 평생친구가 되겠지요.

이것이 첫 번째 주일학교의 매력입니다. 학생들은 주일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공감합니다. 그 중에는 분명 신앙도 있습니다. 자신들 또래에 맞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체험도 나눕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또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주일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력은 미사시간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미사는 어른미사와 다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제대가 있는 단으로 학생들이 올라와 미사 시작기도로 액션송을 바칩니다. 야훼이레 성가집으로 학생들이 성가도 부릅니다. 플룻, 첼로, 기타, 건반을 모두 학생들이 연주합니다. 복사단, 전례도 모두 학생들이 합니다. 중고등부 미사 때 학생들은 확실하게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학생들의 힘으로 미사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이룹니다. 만일 이 많은 것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친구가 하는 것이기에 미사에 더 집중하여 함께 참여합니다.

세 번째 매력은 주일학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행사들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른인 저도 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체험에 의해 개인이 갖게 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신앙 성장판’에 자극을 주는 여러 체험을 준비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뛰어놀 때, 친구들과 무언가를 함께할 때, 조용히 앉아 기도할 때, 나의 재능을 다른 친구들을 위해 사용할 때 등등 어떤 모습이 나의 신앙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신앙적 체험들을 통해 찾아나갈 수 있도록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하느님과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나 여름캠프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하기에 적합하도록 정말 많은 공을 들여 준비합니다. 올해 여름캠프를 홍보하자면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신 대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하느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지리산 일대에서 함께 할 2박 3일, 여름캠프 ‘하하하’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주일학교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글로 모두 담아내기에 제 표현이 부족하여 글은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하느님께로 학생들을 이끄는 선생님들과 하느님을 찾고자 모인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서 늘 지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주일학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영육 간의 평화와 있기를 빕니다. ■

목5동성당 초등부를 소개합니다

초등분과장 이현목 알비노



찬미 예수님!

봄꽃 향기가 가득했던 성모성월이 지나고 어느덧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초등부 학생을 둔 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데가 아마도 초등부 주일학교

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당의 초등부 주일학교 구성은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두 개 반씩 총 1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6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의 수는 336명이며, 학생을 돌보는 교사는 총 18명입니다. 교사가 조금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정말 열심이어서 빈자리를 메우며 함께 즐거운 교리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들은 매일 월례교육을 갑니다. 월례교육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좀 더 쉽게 하느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특히 유치부나 1, 2학년 아이들은 딱딱한 강의보다는 만들기와 그리기 등 시각적이고, 입체적인 교육을 많이 함으로써 지루하지 않은 교리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고 기다리는 행사가 유치부부터 2학년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앙학교와 3학년년부터 6학년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여름캠프, 그리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탄제입니다.

특히 2박 3일로 가는 여름캠프가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첫 여행일수도 있기에 더욱더 설렘으로 여

름캠프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름캠프를 준비하는 교사들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캠프 한 달 전부터는 매일 성당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성탄제는 아이들이 직접 출연해서 장기자랑을 하기 때문에 성탄제 한 달 전부터 프로그램을 짜고 모여서 같이 연습하며 공연준비를 합니다. 교사들도 당연히 같이 연습에 참여해서 아이들이 공연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대부분 대학생인 교사들이 자기시간을 포기하고 성당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행사 말고도 초등부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성당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전례부, 복사단, 성가대 등에 가입해서 미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6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꽤 치열하답니다.

매주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시는 자모회 어머니들도 항상 수고가 많으시죠. 이렇게 간략히 초등부 주일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끝으로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토요일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어린이 미사 때 학부모님들께서는 3층에서 미사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힘드신 분은 예외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같이 계시면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미사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입니다. 아이들만의 미사시간이 되도록 하기위한 조치이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성직자 부모 성지순례 및 피정

최동준 보나벤투라



5월은 성모님의 달이며, 가족이나 이웃을 떠 올릴 수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올봄 역시 서서울지역 청 소속 신부님 및 청소년분과 담당신부님 등의 성직자 부모피정이 5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에 걸쳐 의정부 한마음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되었다.

예수님 향기를 내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직자의 부모로 그리 녹록치 않은 삶을 오직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며 지내던 부모님들께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고마운 마음을 가득 안고 참여하게 되는 행사다.

성직자 아들로 인해 어느 누구와도 쉽게 나눌 수 없는 조금은 혼치 않은 삶을 조순이 사는 부모들께 좋은 계절에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나누도록 마련된 성직자 부모님 피정과 성지순례는 혼치 않은 행사이며, 부모들의 수련의 장이기도 하다.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께서 서서울지역청으로 부임하신 후, 2007년 5월 베론 성지순례를 시작으로 매년 봄에는 피정, 가을에는 성지순례를 통해 성직자 부모의 영육간 건강과 신, 망, 애덕을 기를 수 있는 시간과 공부의 장을 마련해 주신다.

주교님께서서는 성당 현관에서, 공지된 모임 시간보다 1시간 전부터 도착하기 시작하는 부모님들의 손을 일일이 정답게 잡아주시며 환영하셨고, 주교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주교님은 큰 목자시라며 참석자들은 매번 감격해한다.

성서후원회 회장님과 회원들께서는 차 대접과 이름표를 일일이 걸어드리며, 기쁨과 고마움이 넘치는 모습으로 환영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다. 출발을 위해 주교님께서 3대의 버스 탑승 배정 표에 있는 명단을 한 분 한 분 부르시며 확인하고 안내해주시는 모습에 감격해하는 노구의 부모님들의 표정이 아름답게 보였다.

석가탄신일이라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으로 조금은 지체되고,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의 본관 리모델링 작업으로 공간이 부족하여 일정이 축소되는 조금은 아쉬운 분위기도 있었지만, 주교관에 근무하는 형제자매님의 완벽한 기획과 준비로 다소 건강상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심에도 방 배치와 안내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고, 이어 주교님 주례 미사를 시작으로 피정이 시작되었다.

초청 신부님의 강의, 주교님께서 주관하시는 아들 신부님들 근황과 부모님 소개, 새내기 신부님들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여흥으로 한껏 흥이 올랐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성직자 부모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과 위로가 되는 알찬 피정이었다.

봄에는 피정, 가을에는 성지순례를 통하여 많은 성직자 부모님들은 영혼에 힘이 실리고 위로를 받는다. 하느님과 모든 신자의 기도 덕분에 아들 신부님들이 주님 안에서 잘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마침 미사를 드렸다. 벌써 가을 성지순례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진다. 주교님 고맙습니다. ☪

부름에 선택된 이들

청년전례단 단장 이시권 펠릭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마태오 22, 14~15)

1년 7개월, 이 시간은 [부름 받은 젊은이] 청년전례단 활동을 한 시간입니다. 군 전역 이후 전례단에 입단한 때가 엇그제 같은데 현재 저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례로 전하는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군중병을 하면서 성가대, 레지오 등 군대의 성당에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 중 전례를 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오늘 미사는 어떤 전례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발음이 어려운 단어나 문장을 표시하면서 쉽 없이 연습했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신부님께 혹은 다른 군중병 전우들에게 오늘 전례는 어땠는지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구절의 의미를 잘 담아서 이야기했다.” “지난번보다 다소 아쉬웠다.” 매주 저의 전례에 대한 평가는 저의 일주일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어떻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큰 은총이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군 생활에서 전례의 행복을 느낀 저는 전역 후 본당 청년전례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본당 단체 활동 경험이 없던 저에게는 처음에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형·누나들이

대부분이었던 당시 전례단 인원은 대략 15명이었습니다. 또래친구나 비슷한 연배의 친구가 없어서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례가 정말 좋아서 전례단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적응기간을 거치고 전례에 대해 부단장님께 교육을 받은 후 보편지향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기도문을 써내려가면서 몇 번이고 기도문을 고치고 읽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큰 성전의 많은 신자 분들 앞에서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사 전 회합시간과 미사를 준비하는 시간 내내 자리에 앉아 쉽 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첫 기도,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사 후 회합에서 다른 단원들의 평가를 기다리며 조마조마했는데 기도내용과 잘 읽었다는 평가에 긴장이 한 순간에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첫 독서, 첫 해설을 하면서 전례에 대해 조금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단한 다음 달(12월)부터 현재 전례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21살의 어린 단원과 저와 같은 연배인 회계 단원을 시작으로 새로운 청년들이 전례단에 입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었던 저와 두 여자 단원은 창세기 청년성서공부를 시작으로 전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성서모임을 하며 단체 활동에 관심 없던 그룹원을 전례단에 입단권유를 했고 한 명, 두 명씩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단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전례단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 저는 작년 12월부터 입단 1년 만에 전례단 단장에 임명되었고 현재는 35명의 선남선녀들로 구성된 든든한 단원들과 함께 전례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처음 15명으로 시작해 어느덧 35명이 넘는 전례단을 맡고 있는 저는 기분이 남다릅니다. 매주 전례를 구성하기 힘들었던 지난날과 달리 현재는 여유 있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 같은 또래 혹은 비슷한 연령층과 나이 어린 단원이 많아지면서 일주일에 5일 이상을 만나면서 추억도 만들고, 전례를 잘하자는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면서 저는 단장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당의 청년전례단은 [부름받은 젊은이]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30대 청년들은 빠른 변화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주일미사를 빠지고 스펙을 쌓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 미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잡아준

것이 전례였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택된 목5동 성당 청년전례단 [부름받은 젊은이] 그 자체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혹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도록 청년전례단 한 명 한 명의 단원이 선택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만 오늘도 저를 포함한 [부름받은 젊은이] 청년전례단은 말씀을 새기고 따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성모님과 요셉성인은 자녀 성공교육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천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이 유명할까?

이안영(안나)

“공부만 빼면 정말 멋진 아들이지요.”

“시험만 아니면 사실 야단칠 게 없는 딸이에요.”

참, 공부가 뭐기에 부모와 자녀들을 이렇게 갈라놓는 것일까. 시험 때는 상가도 한산하고, 여러 주로 예정되어 있던 부모교육에 결석자가 많아 아예 강의가 연기되는 경우까지 있다. 공교육비는 물론이고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부담에 부모 어깨가 무겁다. 그래도 부모에게 자녀공부는 포기할 수 없는 중대사이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 공부에 몰입양면으로 공을 들이는 이유는 우선 제 의식주를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해결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성공과 성취일 것이다. 그런데 성공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도 손으로 꼽는 성인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의 이야기를 적은 성경은 유사 이래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베스트셀러일 것이며, 결코 절판되지 않을 것이다.

로마를 비롯해 스페인, 터키 같은 나라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문화재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끊임 없다. 전 생애를 다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지혜롭고 훌륭한 수천수만의 신부님 수녀님들이 있고, 현재에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산다. 이보다 더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도대체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아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천년이 지난 지금도 이정도로 유명한 것일까?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 방법을 추측할 수 있다. 해나리 4월호에서 전한 대로 성모님과 엘리사벳은 어머어마한 아들을 둔 엄마들이면서도 기쁨에 가득 차 서로 존경하고 축복하고 있다.

그런 엄마를 둔 예수와 요한의 관계는 마태3장 13-17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는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협동하는 한 팀이다. 요한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보고 사양하는 요한, ‘나’가 아니라 ‘우리’를 앞세우신 예수님, 그를 곧 받아들이는 요한! 성경은 계속 전한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으며,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 하늘에서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들처럼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들에게처럼 성령이 내릴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실 것이다.

세례 장면에서 이어져 곧바로 성경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전한다(마태4장 1-11절). 악마의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빵이 되게 해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떼부자가

되겠는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그 유혹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대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버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다.

두 번째 유혹은 거룩한 도성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라는 것이었다. 악마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받쳐줄 거라고 한다. 만일 그런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특별하겠는가. 거룩한 도성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밑으로 몸을 던지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삼시간에 내려와 예수님을 떠받들어 다치지 않게 땅에 내려놓는다면, 그런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 놀라운 뉴스를 전할 것이다. 예수님은 성스러운 특권을 지닌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이었다. 그야말로 수많은 목격자가 있어서 실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질 기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회도 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다.

악마의 세 번째 유혹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다. 단 하나의 조건은 악마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다. 속으로야 경배를 하건 말건 한 번만 눈 딱 감고 땅에 엎드리면 세상의 나라와 그 영광을 다 준다는데 코앞에 닥친 대단한 출세 아닌가. 바로 눈앞에 전무후무한 출세 카드가 던져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회마저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신다.

악마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있지 않소?’라며 짐짓 예수님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 얼핏 듣기에 악마의 성서 인용들은 부분적으로 합리적이며 학문적이고, 부드럽고 지적으로 보인다. 악마는 자신의 의도를 이와 같이 ‘성경’으로 포장해서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흔들림 없이 하

나로 모아진다. 예수님은 성경을 악마처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거나 인용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용하셨다. 그러면서 그 모든 절호의 기회를 홀연히 보내버리셨다.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은 경제적인 성공, 성스러운 또는 도덕적인 특권, 사회·정치적인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성공과 성취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경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고 한다. 거룩한 또는 도덕적인 특권을 위해 자신을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그것을 아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뭇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라고 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특권을 위해 스스로를 떨어뜨리지 말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라는 것이다. 특권들을 남들 앞에 드러내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에서 알아주는 권력을 얻기 위해 악마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절하지 말라고 한다.

이 시대에도 악마는 우리 자녀들에게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는다. 이천 년 전에 예수님께 나타났던 것처럼 때로는 이해와 소통이 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합리적이며 학문적이고, 부드럽고 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예수님처럼 이천 년 후에도 유명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성경 말씀들이 혼배성사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를 기르겠다고 한 서약’이라고 생각한다. ■

글쓴이 : 한국아동 발달심리센터 가족상담사 역임, P.E.T 전문 강사, 한국가족치료학회 1급 가족치료사, 이안영 아동가족상담소 소장. ‘엄마야빠 참고서’ 저자 ■

양천의 잔치, 양천 마라톤을 마치고

목5런 회장 안병정 요셉



매년 5월초에 안양천변에서 열리는 양천 마라톤은 우리 목5런이 공식 참가하는 대회이며 우리 동네의 잔치입니다. 목동 주변 마라톤클럽은 물론

멀리서 찾아오는 마니아들이 함께하는 대회로 벌써 9회를 맞이했으며, 우리 목5런은 2008년 4월 창립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알찬 대회입니다.

저희 목5런은 20명 이상이 단체로 참여하면 대회장에 부스 제공과 상금을 주는 혜택을 얻기 위해 회원들을 독려한 결과 30여명이 넘는 회원이 하프, 10km, 5km를 함께하며 건강도 챙기고 행복도 맛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답니다.

기존회원은 물론이고 4월 신입회원으로 가입한 마라톤 병아리들이 10km를 얼떨결에 완주하는 쾌감도 느껴봤지요. 9시 출발 후 한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 완주한 주자들이 끝인하자 대회본부에서 제공한 손두부김치, 막걸리와 자매님들이 알뜰히 준비한 족발, 떡, 과일 등을 펼쳐놓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완주를 축하해주는 뒤풀이가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주임신부님, 총회장님, 문화분과장님이 격려차 오셔서 "MOK 5RUN"을 외치며 건배를 했지요.

몇 주 전, 신부님께 함께 달리시자고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안 되었으니 다음기회에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년 전쯤 전임 문삼구 회장(현재 고문시

절 주임신부님배 걷기 달리기대회를 양평교 밑에서 개최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올가을 에는 그런 대회를 한번 하자고 하시네요. 신부님께서 등산으로 단련된 체력과 훈련을 하시어 저희와 함께 하프 완주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대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분위기는 최고조로 달하고 술잔이 오가는 동안 대회본부에서 행운권 추첨을 했는데, 우리 회원 중에 제주왕복항공권과 자전거 3대를 차지하는 노다지 행운이 찾아 들었지요. 이것은 주임신부님께서 행운을 몰고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행운을 차지한 회원들은 신부님을 모시고 사진도 한 컷 찍었으니, 조만간 신부님과 회원들께 한턱 쏘실 거죠? 신부님께서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금일봉을 챙겨주시곤 자리를 뜨셨습니다.

우리 목5런은 모든 회원들이 '달리기는 즐겁게 하프를 달렸지만(즐런), 술로는 풀코스를 달리면서' 동네잔치를 마무리했지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차 오셔서 福을 한바가지 받게 하신 주임신부님 고맙습니다. 📷



소공동체 모임

7-1구역 3반 반장 노국희 데레사

7-1구역 3반의 반원 세대수는 16세대입니다. 16세대 중 반모임에 규칙적으로 나오는 여성 반원은 5명 정도입니다. 반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은 적지만, 이 분들이 하는 성당 봉사는 각각 몇 명의 교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반모임을 하면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좋은 일이나 걱정스러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축하를 받거나 때론 좋은 의견을 듣습니다. 목상을 통해 생활 속의 걱정과 근심 또는 가까운 가족 간의 서운함 등을 서로 진솔하게 풀어놓고 말씀 안에서 나누다보면 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되곤 합니다.

대입 준비를 하는 따님을 둔 자매는 학원문제로 고민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하며 그냥 편안하게 공부만 하게 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보니 우리가 사소한 일이지만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 일을 도와주고 계신 자매는 환율이 오르고 내림에 민감하므로 남편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일로 목상을 나누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윤 아네스 자매는 성서공부 봉사를 수년 간 하고 있고, 봉 안나 자매는 은빛대학 봉사를 했으며 지금은 레지오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안나 자매는 현재 성모회 회장을 하며 본당의 북카페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의 초대 회장을 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빙 엘리사벳 자매는 레지오 단장을 하고 있으며 퀼트와 십자수 실력이 수준

급으로 작품을 한 번쯤 본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반장인 저는 두 번 연속으로 반장을 하고 있으며, 저 역시 레지오 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꼽을 정도의 숫자로 이루어진 작은 반모임이지만 우리 반원들은 참 사랑으로 한 가족같이 김치, 빵튀기, 여행 다녀오며 사온 생선에 이르기까지 서로 나누며, 때로는 집 근처의 카페에서 팔빙수 한 그릇으로 웃음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순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주님 사랑의 첫 번째 실천 사항이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직장에 나가고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등 일이 있어 반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다른 자매님들도 빠른 시일 안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저희 파크빌 모든 교우 가정에도 주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은빛대학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은빛대학장 장순선 실비아



3년 전 은빛대학 어르신 학생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추억을 되새길 즈음, 학생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자 수학여행 준비

를 시작하며 신청을 받다보니, 100여 분이 넘었던 3년 전과는 달리 약 70여 분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옛말처럼 몸이 불편하셔서 마음과 달리 함께하지 못하시는구나 생각하니, 많은 분이 참가 하지 못하신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신부님과 봉사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5월 20일 3박4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서 1시 30분 제주발 비행기를 타고 2시 30분에 도착하여, 첫 날은 무리가 되지 않는 일정으로 산굼부리 한 곳만 여행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신부님의 추천으로 간 산굼부리의 드넓게 펼쳐진 자연경관에 감탄사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한 우리는 숙소인 대명콘도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날 조식을 하고 이시돌로 갔습니다. 성전에서 미사 드리는 것에 익숙한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미사를 드리는 신부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익숙지 않은 야외미사에 실수도 있었지만, 서로 웃으며 독려하며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간 곳은 다산 정약용 요한의 어머니

묘지인 카멜레온 힐(동백꽃 길)입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웃고 노래하는 학생 분들의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사목하실 때의 신부님을 기억하는 신자 분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약밥과 한라봉을 받고 감사하며 내년에도 다시 오자는 여러분의 말씀에 미소 짓는 신부님의 얼굴에 또 다른 추억이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식사로 제주도 특산음식인 흑돼지 고기를 드신 후 숙소 연회장에서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학여행 3박4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신부님께서는, 매일 아침이면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안 계신지, 학생 여러분의 건강을 염려하시며 여행 일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셋째 날 제주도의 일정은 섭지코지를 시작으로 아쿠아플레트를 둘러보고 점심은 어르신이 되어서도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직접 따오신 전복으로 만든 죽을 먹었는데, 그 맛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식사 후 표선민속촌, 비자람을 견학하고 신부님이 3년 동안 재임하셨던 김녕성당을 잠시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당 마당으로 들어서니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나오질 않으십니다. 미사를 드리기 원하는 바람은 두 분 신부님의 저녁식사도 미루게 했고, 정규 미사시간이 아님에도 김녕성당의 주임신부님께서 흔쾌히 미사를 봉헌해주

셨습니다. 주님의 집에 온 우리의 바람대로 어느 때보다 축복과 은총이 넘치는 미사를 드릴 수 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나오는 길에 그곳 신자 분들이 직접 따서 말린 고사리를 선물로 받는 행운까지 얻었습니다. 제주 수학여행 기념으로 학생 분들께 드린 장바구니가 조금씩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은 에코랜드 견학을 하고 점심식사 후 공항으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 중에, 김포공항에서 내리면 성당까지 데려다줘야 하는 버스가 5시까지 오기로 되어있었는데,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점심식사는커녕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 외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올레길의 골목으로 들어가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모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 전구해 주소서, 비행기가 지연되던지 버스가 빨리 오던지 어떻게든 도와주소서. 학생들이 김포 공항에서 1시간을 머무르는 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마무리

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의 기도를 함께 빌어주소서!’

그런데 잠시 후 여행사 사장이신 마태오 형제님이 다가오며 물으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바라보는데 웃으시며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1시간 지연된다는 말씀에 ‘아!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성호를 그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일정을 무사히 마친 우리 일행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천재지변으로 제주 공항의 대합실에서 1시간을 대기했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대기시간 내내 저는 성모님 품에 안겨 맘 놓고 즐겼습니다.

큰 문제없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찬미, 감사드리며 등대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임신부님, 서로 격려하며 함께한 열 분의 봉사자 선생님들과 실버분과장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다음에도 우리를 또 데려온다며 시간도 잘 맞추고, 이탈 없이 잘 따라주셔서 별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오신 은빛대학 학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레지오 파리아 전 단원 열차 성지순례

일시 : 6월 6일 목요일

장소 : 전북 익산 나바위성지





사진으로 보는 본당의 소식

* 4월 28일 예비자 서울 순교 사적지순례
성모승천 대축일 세례자 예비반
봉사자 포함 60여명



* 성모성월 구역 별 저녁기도
시간 :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기도 장소 : 성당 마당 성모님상 앞



* 5월 2일 은빛대학 어버이날 행사



* 5월 여성 단체장 회의
10시 미사 후 김포에서



* 문화교실 꽃꽂이반 전시회
일시 : 5월 11일 토-12일 주일까지
장소 : 목5동성당 만남의 방

* 신앙의 해, 교황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조배 일시 : 6월 2일 주일
12시- 01:00

* 해나리 은빛대학 제주도 여행
기간 : 5월 20일 월-5월 23일 목요일까지

* 6월 2일 까리따스 수녀회
생활성서와 신앙서적 홍보를 위한 방문



* 6월 3일 총구역 구역장 지세포 성지순례



*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사목을 위한 성가정 갤러리
'꿈과 희망을 나누는 캐리커처 전'
기간 : 6월 5일 수-6월 11일 화까지



* 6월 9일 예비신자 모집 및 입교 환영식 - 수요일(오전, 저녁반), 일요일 오전반



* 6월 9일 제주교구 서귀북자성당 내 해성유치원 - 건립기금 마련 모금 및 물품 판매



* 사목위원 성당 단장



문화교실 꽃꽂이 반 전시회

일시 : 5월 11일 토-12일 주일까지 / 장소 : 목5동성당 만남의 방



수채화 반

목요반/ 화요반 오후 2시-5시



강은미작 수련

노현옥 비비안나작 해바라기

조현옥 올리아작 목련

문화교실 꽃꽂이

회원 이기수 글라라



문화교실 꽃꽂이반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2년 가까이 되어 가는군요. 처음에는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선물하기에 꽃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꽃꽂이 작품을 볼 때마다 가족들이 느끼는 아름다움, 화려함, 소박함, 정결함과 같은 다양한 감정이 가져다 주는 마음의 평화는 생각보다 큼니다. 아름다운 오월, 성모성월을 맞아 성모의 밤에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목주의 기도'를 주제로 전시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된 꽃 중에서 저는 꽃이 피고 지는 것을 통하여 삶과 죽음 또는 다시 사는 부활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톱밥을 이용한 구조물, 카라, 스카비오사, 미니 호접란 그리고 스틸그래스 등의 꽃들을 이용하여 부활을 나타내었지요. 전시회를 통하여 꽃으로만 장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 조형물 그리고 신소재 등

을 활용해서 작품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사람의 눈에 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으로 성경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담아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시편과 아가서에도 꽃에 대한 서정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으며 탈출기 25장 31절~40절에도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에 꽃이 있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성전 위의 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꽃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신지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 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주임 신부님, 항상 미소를 지으며 헌신적으로 우리를 지도하며 봉사하는 삶을 직접 보여주시는 차에리 엘리사벳 선생님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서로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나누는 꽃꽂이반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

문화교실 수채화반 / 강사 박혜령 아델라



수채화반은 3월초에 목요반 한 반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화요반 까지 두 개의 반을 운영하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입니다. 수업특성상 개인지도가 필요하여 두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기준에 그림을 그리시던 수준 높은 분도 계시지만, 처음 그림을 접하는 회원이 많아 기초 데생을 배우고 시작합니다. 지금은 수채화 그리기 수업 중이며 진행이 빠른 분은 4-5점정도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인지 수업성취도가 아주

높습니다. 수채화반은 주로 꽃그림을 그리지만 정물과 풍경도 그립니다. 꽃그림은 꽃병 속에 꽂혀있는 꽃이 아니라, 자연그대로의 상태로 피어 있는 꽃그림을 그립니다. 수채화 전문지인 아르쉬지를 사용하여 프로수채화를 지도합니다.

전문 수채화의 ABC를 통하여 수준 높은 작품세계로 나아가려합니다. 이제 시작하지 3달밖에 안 되었지만 11월 초에 있을 본당전시회에 대비하여 회원 분들이 열심히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수채화반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기차 타고 나바위 성지순례

성가정의 어머니Co. 소속 기쁨의 샘Pr. 단장 지영옥 로사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모자를 쓸까? 의상 코디를 끝내고 선글라스까지 골랐습니다. 명색이 단장이니 단원들 간식 마련한다고 냉동실의 꽃감을 담았습니다. 여기저기 자랑스레 예고하고 다니

던 기차 순례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6월의 6일 아침, 설레는 맘 가득 집을 나섭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강 단장님을 만납니다. 이런! 손 가득 단원들에게 나눠 줄 커다란 간식 주머니를 들고 계십니다. 부랴부랴 영등포역에서 과일 몇 봉지를 더 장만합니다. 초록 조끼를 입으신 봉사자들의 안내로 지하도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 편하게 대합실에 도착합니다. 이미 대합실에는 많은 물과 많은 떡 상자, 색색이 인쇄된 이름표와 깃발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초록조끼 간부님들의 분주함은 어제부터 지금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이제 기차는 달려가고 우리의 기도도 달려갑니다. 기도는 좋은 친구가 되어 여정을 저만치 당겨줍니다. 은총 속의 기차는 어느새 강경역 도착을 안내합니다. 이미 2시간이 지난 즈음이라 햇님이 높이 솟아올라 우리의 순례를 에스코트합니다. 땀 뻘뻘 흘리며 굽이굽이 흐르는 금강 언저리를 걷습니다. 간간이 불어주는 강바람과 초록으로 무르익는 들판을 벗 삼으며 주님을 초대합니다. 참 아름다운 순례 길이 됩니다.

안드레아 신부님의 옛된 모습도 보입니다. 한양

으로 가셔야 하는데 폭풍우를 만나 겨우겨우 당도한 곳이 이곳 나바위라지요. 강경이나 군산으로 들어갔으면 아마도 체포와 구금 등등의 순서로 복음 전파는 한 세기 더 늦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은 우리 선조들의 복음화를 선택하셨나 봅니다. 동승한 외국 신부님들의 선교는 이 삼십 년 계속 이어질 수 있으셨다니 말입니다.

문득 뒤를 돌아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순례 행렬이 이어집니다. 커다란 사진기 둘러매고 큰 배낭 짊어지신 황 찍사님은 ‘멋지다’를 연발하시며 셔터를 누르십니다. 빈손에 작은 배낭지고도 “뎁네, 목 마르네! 하며 칭얼거리던 내가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화살기도 올립니다. “주님! 황 찍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선봉대였던 우리는 먼저 식사합니다. 정신없이 먹다보니 양 부단장님 아직도 메가폰 잡고 쉴 틈 없이 안내하십니다. 슬그머니 죄송한 마음에 ‘국 펄!’ 봉사를 잠시 합니다.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 길던 식사 줄이 끝나갑니다. ‘국 펄!’ 봉사도 끝납니다.

좀 쉬려했더니 기도대장 안 단장님 십자가의 길 하사십니다. 열걸에 따라하니 마음 더 기뻐집니다. 역시 주님의 일은 하기 전보다 하고나서 더 기뻐지나 봅니다. 잠시 평상에 앉아 노닥노닥 정을 나눕니다. 미사 보자고 부릅니다. 평화의 모후 동상아래 아담하게 자리 잡은 명당~에서 미사는 봉헌됩니다. 익산 사투리 섞인 강론을 아주 재미나게 듣습니다. 당신의 성지를 가꾸는 당신의 귀한 종을 위해 다시 화살 장전, 발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개인적으로 이번 성지순례의 하이라이트는 미사 후에 있었습니다. 전대사 은총입니다. 2년 전 사랑하고 아끼던 그래서 너무나 아까운 조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해 이 세상을 떠난 조카를 위해 미리 고백성사도 보고 은총을 청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예쁜 조카가 상큼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고마워요. 작은 엄마~!”

마음은 가볍고 기쁘나 이미 몸은 지쳐옵니다. 버스로버스로 순례자들이 모입니다. 버스 순례자들에게 강경젓갈 배달을 부탁드립니다. 기꺼이 들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뎁습니다. 멧을 좀 내느라 불편을 감수하고 신은 신발 때문에 발바닥이 아파옵니다. 강 길을 벗어나 지름길로 인도하는 편을 따라 걷습니다. 일~~ 짝 역에 도착하니 아직 기차 출발 시간이 멍니다. 근처 마트를 점령합니다. 마침 에어컨도 돌아가서 구석진 곳에 첼퍼덕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아이스

크림 입에 물고 염치불구 합니다. 주인장 아무 내색 없으십니다. 화살 한 번 더 쏘는 걸로! ‘복 받으시길!’

돌아오는 기차 여정은 흥으로 가득 찹니다. 아직도 초록조끼의 단장님들은 물 나르고, 음료 나르고, 반찬 나르며 분주하시기 여전합니다. 정말 미안하고 감사해집니다. 어쩔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쁘셔도 불평 한 번 없으신 건지. 어떻게 우리만 즐거웠으면 좋다고 말해 주시는 건지. 정말 감사를 넘어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사랑 주고 사랑 받는 소중한 순례의 하루가 저물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특히 초록조끼의 봉사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레지오 하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나바위 성지순례를 마치고

지혜로운 동정녀 이원혜 카타리나



기차로 떠나는 성지순례, 기다림과 설렘 뒤에 드디어 6월 6일 신부님, 수녀님과 레지오 형제자매님 600여 명은 전북 익산에 있는 나바위성지로 출발 했다.

영등포역에서 8시 59분 출발하여 11시 29분에 강경역에 도착하는 2시간 반

동안의 기차여행은 레지오 시작 기도와 까페나, 행사일정 및 성지 소개를 했다. 금강산도식후경이라고 했던가. 형제자매님들은 어린 시절, 기차 안에서 삶은 달걀을 사먹던 기억을 떠올렸을 터, 맛있고도 푸짐한 먹을거리를 즐기면서 기차 속 풍경은 계속 되었다.

강경역에 도착하여 성지로 가는 길의 시작은 질

서정연하게 금강종주 자전거 길을 일부나마 밟으며 갔다. 30도를 넘는 무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며 걷는데, 황산포구등대가 보이기 시작할 즈음 그런대로 강바람이 불어와 시원함을 만끽하며 걸었다. 아직은 덜 익은 뽕나무의 열매 오디도 보이고, 낭청 수문 아래를 걸으니 모가 가지런히 심겨진 논과 방울 토마토를 키우는 온실이 우리를 반긴다. 잡다하고도 바쁜 도시의 일상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성지가 가까워오니 김대건 신부님 일행의 착륙지점도 보였다.

* 나바위 성지는 전북 익산 위치하는데, 조선시대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산이 아름답다고 해서 화산(華山)이라 명명했다하며, '나바위'라는 명칭은 산의 줄기가 끝나는 지점에 너른 바위가 펼쳐져있다 해서 붙여졌다.

나바위 성지는 김대건 신부님(1821-46)이 상해 금강항 성당에서 1845년 8월 17일 사제품을 받고, 페레올 주교, 다블뤼 신부 및 11명의 한국인 신자들과 함께 포교지인 한양으로 향하던 중 폭풍우와 풍랑으로 돛대와 키가 파손되어 표류하다 제주도에 닿았다. 그곳에서 배를 정비한 후 다시 북상하였으나 배의 상태가 좋지 않아 한양으로의 항해가 불가능하여 강정에 착륙했다고 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초대 주임이었던 베르모렐 신부에 의해 1906년에 건축된 성당이 나바위성당이다.

나바위 성지에 들어섰다. 성지를 둘러보며 모두 성지 내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였다. 성지 내의 성당 건물을 본 첫 느낌은 명동성당과 비슷하다 느꼈는데, 안내판을 보니 명동성당을 설계한 프라렐 신부님이 이 성당도 설계하였다고 되어있다.

성지를 둘러본 후, 야외미사가 있었다. 나바위 성당의 김경수 신부님께서 말씀 중에 '하느님의 이끄심을 간직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하느님을 간직할 수 있는'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나바위 성지순례 방문의 의미를 새기도록 해주셨다. 뜨거운 햇볕아래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신부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형제자매님들 모습 또한 감동이었다.

단체 사진과 각 꾸리아 별 사진을 찍고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아쉬움을 뒤로하며 올 때 걸었던 길을 따라 다시 걸어서 강경역으로 왔다. 강경역에 오니 대부분 더위에 지쳐 시원함에 대한 갈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기차에 올랐다.

너도나도 입안을 즐겁게 하려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형제자매님들의 넘쳐나는 먹을거리 품앗이가 시작되었다. 감칠 맛 나는 웅어회 무침, 막걸리, 적당한 당도의 팔양금을 가진 쫄깃한 바람떡 등이 나왔고, 주임신부님의 노래 '사랑해 당신을'과 앙코르 등으로 귀를 즐겁게 하며 귀경하였다.

지루한 일상 속에 맞이한 기차여행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든 사건이었다. 벌써 내년이 기대된다.

빨간 장미와 아카시아 향기에 취하는 6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신 김대건 신부님께서 신부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은 곳을 찾아 주님과 함께 하며 걸은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알차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기차여행으로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마련해주신 주임신부님, 생수를 준비해 갈증을 해소해주신 사목회장님, 이번 성지순례를 주관하신 꼬미시움 단장님과 전 꾸리아 간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전입교우 명단 · 우리본당 살림살이

2013년 4월 1일 - 4월 30일 전입교우 명단

| 전입월 | 교우 | 주소 | 지역 / 구역 / 반 |
|--------------|--------------|----------------|-------------|
| 4월 | 이정원 아브라함 외3 | 목5동 목동A 108동 | 1지역 1구역 1반 |
| | 이영숙 스텔라 외1 | 목5동 목동A 302동 | 3지역 1구역 2반 |
| | 오현아 엘리사벳 | 목5동 목동A 310동 | 3지역 2구역 1반 |
| | 인성희 레지나 | 목1동 하이페리온 102동 | 7지역 3구역 3반 |
| | 박경화 리디아 | 목5동 목동A 514동 | 5지역 2구역 1반 |
| | 이윤아 헤레나 | 목5동 목동A 306동 | 3지역 1구역 6반 |
| | 박해진 바울라 외2 | 목2동 우성A 102동 | 1지역 2구역 7반 |
| | 강미옥 로사 | 목5동 목동A 318동 | 3지역 2구역 4반 |
| | 박인진 아나다시아 | 목5동 목동A 519동 | 5지역 2구역 3반 |
| | 윤은선 프리실라 | 목동 목동트윈빌 8동 | 7지역 2구역 2반 |
| | 김현진 로사리아 외1 | 목5동 가든스위트 | 7지역 1구역 2반 |
| | 정민화 요안나 | 목1동 하이페리온 102동 | 7지역 3구역 3반 |
| | 전성희 마리스텔라 | 목5동 목동A 411동 | 4지역 2구역 6반 |
| | 정순용 헬레나 | 목5동 목동A 407동 | 4지역 2구역 2반 |
| | 임옥희 마리아 | 목5동 목동A 614동 | 6지역 2구역 5반 |
| | 윤경수 브루노 외2 | 목5동 목동A 216동 | 2지역 1구역 6반 |
| | 박순건 스테파노 외4 | 목5동 목동A 607동 | 6지역 1구역 4반 |
| | 강경구 요한 | 목5동 목동A 514동 | 5지역 2구역 1반 |
| | 김도연 프란치스코 외2 | 목1동 목동파라곤 104동 | 6지역 2구역 2반 |
| | 이아를 레지나 | 목5동 목동A 514동 | 5지역 2구역 1반 |
| 이아영 크리스티나 외2 | 목5동 목동A 605동 | 6지역 1구역 3반 | |
| 조원철 스테파노 외2 | 목5동 목동A 303동 | 3지역 1구역 3반 | |
| 정청일 요셉파나 외2 | 목5동 목동A 133동 | 1지역 3구역 9반 | |

2013년 5월 1일 - 5월 31일 전입교우 명단

| 전입월 | 교우 | 주소 | 지역 / 구역 / 반 |
|-----|--------------|----------------|-------------|
| 5월 | 박성현 리노 외3 | 목1동 하이페리온 102동 | 7지역 3구역 4반 |
| | 박창하 요셉 외5 | 목5동 목동A 610동 | 6지역 2구역 1반 |
| | 염혜련 에네스 | 목5동 목동A 126동 | 1지역 3구역 3반 |
| | 강인모 베드로 외3 | 목5동 목동A 532동 | 5지역 3구역 4반 |
| | 박지은 비비안나 | 목5동 목동A 108동 | 1지역 1구역 4반 |
| | 김효재 헤레나 | 목5동 현대파크빌 | 7지역 1구역 3반 |
| | 정배원 막달레나 외2 | 목5동 목동A 602동 | 6지역 1구역 1반 |
| | 오상희 데레사 | 목1동 하이페리온 102동 | 7지역 3구역 4반 |
| | 박태하 프란치스코 외3 | 목5동 목동A 133동 | 1지역 3구역 9반 |
| | 오세일 펠릭스 외3 | 목5동 목동A 410동 | 4지역 1구역 5반 |
| | 유재섭 마태오 외3 | 목5동 목동A 235동 | 2지역 2구역 11반 |
| | 장현숙 카타리나 외1 | 목5동 한신청구A 101동 | 1지역 4구역 1반 |
| | 김태형 대건안드레아 | 목5동 목동A 408동 | 4지역 2구역 3반 |
| | 김창욱 에피파니오 | 목5동 목동A 615동 | 6지역 2구역 6반 |
| | 김나정 소피아 | 목5동 목동A 404 | 4지역 1구역 4반 |

★ 교우 여러분의 원고를 받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글이 해나리의 힘입니다. 성당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보고 듣고 느낀 일들을 원고지에 옮겨주세요. 분량은 A4 용지 1-2매 정도면 좋습니다. 원고 쓴 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나리 메일로 보내주세요. haenari0330@hanmail.net 입니다.

| 과 목 | 수 입(천원) | | 지 출(천원) | |
|--------|----------|----------|----------|----------|
| | 2013년 4월 | 2013년 5월 | 2013년 4월 | 2013년 5월 |
| 교우금 | 96,553 | 94,916 | 재전비 | 714 |
| 주일헌금 | 79,141 | 45,593 | 전교비 | 4,421 |
| 감사헌금 | 7,410 | 6,390 | 단체보조비 | 11,342 |
| 특별헌금 | 11,196 | 15,232 | 주일학교운영비 | 13,276 |
| 기타목적헌금 | - | 3,679 | 특별헌금 | 11,196 |
| 혼매, 장례 | 1,300 | 400 | 사제생활비 | 2,800 |
| 기타기부금 | 8,890 | 2,586 | 사제공제및교육비 | 1,500 |
| 기타헌금 | 3,542 | 1,583 | 사제공제및교육비 | 300 |
| 후원금 | 4,786 | 2,502 | 수녀생활비 | 3,000 |
| 가수금 | 230 | 2,450 | 수녀성무활동비 | 750 |
| 예수금 | 1,580 | 1,487 | 수녀특별지원비 | 165 |
| 이자수입 | - | - | 신자피조교육비 | 1,688 |
| | | | 교구납부금 | 120,000 |
| | | | 자선천조비 | 9,786 |
| | | | 본당행사비 | 3,231 |
| | | | 직원급여 | 8,313 |
| | | | 직원수당 | 3,381 |
| | | | 상여수당 | 0 |
| | | | 직원노임 | 890 |
| | | | 사무용품비 | 719 |
| | | | 인쇄비 | 5,149 |
| | | | 소모품비 | 1,932 |
| | | | 수도광열비 | 10,312 |
| | | | 수선비 | 420 |
| | | | 차량비 | 0 |
| | | | 입차료 | 359 |
| | | | 운역비 | 1,237 |
| | | | 통신비 | 348 |
| | | | 복리후생비 | 2,685 |
| | | | 시설투자 | 1,420 |
| | | | 조정비 | 875 |
| | | | 세금공과금 | 0 |
| | | | 잡지출 | 324 |
| | | | 가수금 | 30 |
| | | | 예수금 | 1,580 |
| 합계 | 214,628 | 176,818 | 합계 | 224,143 |
| 이월금 | 648,599 | 639,084 | 이월금 | 639,084 |
| 총계 | 863,227 | 815,902 | 총계 | 863,227 |

- 해나리 광고안내 -

광고료 : 1호 1회 3만원 3회 기본, 1년 선납하면 1회 무료(2013년부터)
 광고신청 및 광고문안 : haenari0330@hanmail.net
 이현정 소화데레사 : 010-2000-6694
 계좌번호 : 외환은행 327-22-01559-1,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공인 결혼정보사 - 초·재혼·만혼
m·j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전문 커플매니저 시스템
 모바일 웹; m.mjms.co.kr
 http://www.mjms.co.kr
 대표 김 마리아

상담센터 **행복한 아이들**
 소장 정미나(엘미나) TEL 02-2653-4306~7
 현대드림타워 209호
 (방송회관 옆 스포츠조선 건물 2층)
 아동상담 - 학습치료·놀이치료·언어치료
 발달장애 - 통합치료 및 교육 미취학 또는 취학 아동의 예비학교
 집단상담 - 학습능력향상 / 주의집중력강화 / 사회성 향상
 성인상담 - 개인상담 / 부부상담 / 부모역할훈련
 심리검사 - 자녀의 지적수준과 성격특성을 진단하여 정서 및 학습 등에서
 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도움 방법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안경매니저
 안경콘택트 신목중점
 장흥환 사도요한
 라지혜 엘리사벳
 2단지 신목중학교 정문 건너편 로얄빌딩 1층
 TEL 02) 2642-3355 H.P 010-9552-7319

두반
 직접 빛은 순두부와 안주
 (구)대치역방 월촌중학교 앞, 하이베라스 1층 후면
 홍희진 안드레아, 이영주 마리아
 전화번호: 02-2649-2050 / 핸드폰: 010-2085-2051

타임부동산
 목동아파트 전문
안인근(안젤로) 조정례(안젤라)
 (代)2654-1055
 - 목동5단지 A상가 105호 -

신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2단지
 일반상가 117호
김경화
 로사 TEL : 02)2652-4989
 FAX : 02)2652-8432
 H.P : 010-2997-2987

꿈나무 소아과
 소아 아토피 피부염 정연정(안나)
 소아 중이염 원장/소아과 전문의
 알레르기 클리닉
 영유아 발달검사
 158-055 서울시 양천구 목동5동 907-17 광장빌딩 3층
 TEL : 02)2643-8155 FAX : 02)2643-8154

가을이유기피단용
학생치킨
 버디크
 겨울을 사용하지 않고 바삭바삭 베이컨치킨
 2단계 저염요리의 프랜차이즈를 가진 구운치킨
 입니다. 목동점과 함께하세요.
 단돈2000원부터 가능합니다.
김군자(마리아)
목동점: 02-2653-9282
 - 309동 뒤 강서고등학교 입구 -

나눔 공인중개사
 2643-5050 (주, 야간 가능)
 박정림(엘리사벳) H.P 010-2203-1140
 목동3단지 일반상가 328동 앞 하나은행 옆

온누리 공인중개사
 신공웅(도미니교) 010-3253-2263
 하영숙(바올라) 010-9671-2369
 ☎ 02-2649-5580
 목동3단지 301동 앞 일반상가 하나은행 옆

목동텔레콤
 이예경(루시아)
 H.P: 010-3286-7604
 TEL: 02) 2642-7604 FAX: 02) 2642-7606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7-10 현대파라지향 1층 106호
 SK telecom SHOW LG Telecom

중고 자동차 매매
 (20년 전통)
 ★ 폐차, 수출 상담환영 ★
 이현인 바오로 : 011-241-1212

굿모닝 공인중개사
 목동아파트, 한신청구, 부영전문
 매매·전세·월세 구함
2649-9200
 목동APT 6단지 611동 앞 관리동 상가
 김정숙(효주 아네스) H.P 010-9598-9433

강서 성모내과
 ◆ 내시경 (위·대장·수면 내시경)
 ◆ 초음파 (심장·갑상선·복부)
 ◆ 혈액 종합검사
 영삼동 국민은행 앞, 전화 : 3662-7585
 원 장 : 김 영 준 (펠릭스)

축하 화환 꽃다발, 꽃바구니 **꽃나리**
 근조 화환, 개업, 승진축하 화환, 동·서양란
 이연복(데레사)
 T. 02-2646-7898 H.P 010-8244-7898
 목동 아파트 2단지 일반상가 119호

핸드폰 판매점
iLounge 오픈
 3사 통신제품 모두 판매합니다. 교우 우대.
 5단지 건너편 총각네 야채가게 옆
 홍태성 바오로, 홍성훈 펠릭스
 전화번호: 02-2062-2050 / 핸드폰: 010-2654-2052

똑똑한 엄마들의 선택!!!
 0세부터 7세까지 프리미엄 스토리텔링 영어프로그램
잉글리시에그 양천센터
 목동 현대하이페리온2차 205동 304호
02) 2640-0521
 지사장 채지숙 비비아나 010-4038-1432

두피·탈모 고민해결!!
 두피·탈모 무료진단
 보루지/각질·비듬/탈모
스케일링 → 무료
 (첫 1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5동 목동트윈빌 227호
엠지에프 목동점 2651-5875 대표원장: 김완용 (모세)

영 피아노 스튜디오 (1:1 맞춤 교육)
 유아영재/ 입시/ 초,중,고 일반 교양과정
 그랜드 피아노 연습실 대여 (Yamaha보유)
 김진영 (젼마) 010-8782-5273
 목동 KT건물 옆 세신 비전 프라자 607호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
자서전을 물려주세요!
 부모님의 신앙·삶의 자세·자식 사랑
 알리는 전하고 교육하기 어렵지요.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큰 권의 감동여언 서사시가 됩니다!
 자서전의 A부터 Z까지!
출판사 모정 대표 홍미숙 마리아
 소장/시판용 문의 TEL 02)6092-5070 H.P 011-9890-3675

이제 해나리를 물러냅니다

편집팀장 백명애 마르가리타

해나리를 시작하면서 누가 해나리를 만드는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해나리를 마치며 적잖은 시간을 해나리와 함께했고, 적잖은 분과 문자와 메일을 통해 소통했기에, 그동안 해나리에 원고를 주고 마음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꼭 드려야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해나리를 만드는 동안 늘 주교님의 원고가 해나리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원고를 모을 시간이 다가오면 주교님의 원고가 메일에 도착하여 깜박깜박 불을 밝혀주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할 때가 되었구나!' 제게 신호가 되었습니다. 주교님께서 보여주신 해나리를 향한 마음, 사랑에 대한 감사 인사는 몇 쪽으로 표현해도 부족합니다. 이 글은 한쪽으로 마무리하지만 감사드리는 마음을 보이지 않는 페이지에 무수히 붙여 놓았습니다. 주교님께서 보이는 보이시죠?^^

해나리에 전권을 주시고, 바람에 흔들려도 변함없이 믿어주신 주임신부님의 배려 감사드리고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목5동성당을 떠나실 때까지 좋은 원고 계속 주기로 약속해주신 이주하 스테파노 신부님 감사합니다.

황경희 엘리사벳님, 단장님의 사진이 없었다면 해나리를 이리 편하게 만들지 못했을 거라는 저의 감사의 마음 아시죠! '짱'입니다. 더불어 관심 가져 주신 모든 분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따

로 해나리 한 권 분량으로 편집하고 싶은 마음 하늘만 합니다.

해나리를 하며 스스로 세웠던 몇 가지 원칙에 맞게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당 활동이나 개인의 이야기라도 신앙과 연결되어진 글은 모두 실었습니다. 다만 소식지라는 특성이 있어 개인의 감성에만 치우친 글은 신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편집 분량에 맞춘다는 이유이긴 하나, 원고를 주신 분들께서 혹시라도 임의로 수정된 글을 보시고 서운한 적이 있으셨다면, 이 기회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나리를 만들며 경험했던 모든 일이 제게는 모두 스승이 되었습니다. 좋은 경험은 제 삶과 동행할 것이고, 떨쳐버리고 싶은 경험은 제 삶의 반면교사가 되어 저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해나리에 보여주신 교우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원고는 앞으로도 주옥 이어져 목5동성당의 기록으로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청합니다. 차기 팀장 이성자 마리안나 자매에게 무한한 사랑 부탁드립니다. 물러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편집에 대한 고뇌가 영킨 실타래가 되어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해결점을 얻게 하시고, 나태와 안이함은 결과물에 나타난 실수와 오류로 깨우치게 허락하신 주님! 제게 늘 최고이며 최선이십니다. 🙏

사진반

초급반, 상급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강사 : 김정희

사진이란 경험과 탐험, 표현의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진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자 표현이며,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피사체를 좀 더 확실하게 보고 그 시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사진은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기록과 재현의 수단에서 자유로운 창작과 발상을 시각화하는 실험적인 표현의 미디어로 진화하였고, 개인의 사고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가상의 세계까지 아우르는 주요 시각매체로 발전해왔다.

오늘날의 사진은 더 이상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습득된 전문성의 기반을 요구하지 않으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로 자리 잡았고 개인의 창작과 소통에 대한 욕구를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활발하게 소화하는 장르로 발전하였다.

디지털 사진의 보급은 사진이 갖는 재현성의 영역을 현실세계 밖까지 확대 하였으며 사진을 통한 자유로운 사고와 시각적 표현을 사진 창작 영역이 가져왔던 기존의 경계 저 너머로 이끌고 있다.

우리는 사진반 활동을 통해 디지털 카메라로 대상 바라보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컴퓨터, 포토샵, 인터넷, 인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서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사진, 그리고 주제가 있는 사진을 만드는 데 집중하도록 기술적인 사항과 작가로서의 마음가짐을 이해시키려 한다. 🙏



2013년 여름캠프

* 청년 여름캠프

일정 : 7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장소 : 제주시 서귀포 및 한림읍 일대 올레길

대상 : 목5동성당 청년 단체 및 교적이 있는 청년

인원 : 선착순 남녀 각 21명

회장 : 우남길 스테파노

* 중고등부 주일학교 여름캠프 '하하하'

일정 : 7월 26일 금요일부터~28일까지 2박 3일간

장소 : 전라북도 전주, 남원, 지리산 일대

대상 : 목5동성당 주일학교 중1~ 고2 학생

접수 : 6월 9일 주일부터~ 미사 후 접수순 80명

교감 : 우양길 세바스티아노

*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8월 2일 금요일부터 ~ 4일까지 2박 3일

장소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대상 : 초등학교 3학년-6학년

교감 : 권도윤 마르첼리노

* 초등부 신앙학교 여름캠프

일시 : 8월 9일 금요일-10일 토요일까지

장소 : 목5동 성당

대상 : 유치부-초등부 2학년

교감 : 권도윤 마르첼리노